

선군시대 북한 여성 작가의 감성적 글쓰기 양상*

- '렘형미, 리연희, 리라순'의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을 중심으로

임옥규**

차례

1. 들어가며
2. 렘형미, 접촉의 시어
3. 리연희, 안음과 안김의 시어
4. 리라순, 정과 사랑의 서사
5.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2000년대 전후 선군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북한의 체제 하에서의 북한 여성 작가의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1990년대 수령의 사망과 '유혼 통치기'를 거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2000년대 선군시대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연이은 재난과 위기의식이 문학적으로 표출될 때 일련의 북한 여성 작가의 글 속에서는 여성 특유의 감수성이 드러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는 북한 여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하여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본고는 1980년 이후 국가의 문학현상모집에 당선되면서 성장한 문학세대 중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선보인 북한 여성 작가를 선정하여 선군시대에 위기를 극복해 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7326).

**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가는 방식으로서의 글쓰기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선군시대 여성 작가들은 다양한 체험을 글로 표현하면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생활의 발견과 시대의 감정을 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렬형미, 리연희, 리라순의 글에서는 정서적 교감을 통한 감성적 글쓰기의 형태가 돋보인다. 이들은 군중문학 출신으로 생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선군시대의 이상과 감성을 분출하고 있다.

렬형미의 시는 결혼과 출산, 육아의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감각, 돌보는 모성 역할에 대해 노래한다. 렬형미 시에 나타나는 ‘모성’은 남성 중심적인 부정적 질서에 대한 전복이 아니라 여성이 겪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선군시대 북한이 겪는 문제들과 결부되어 이를 극복해내는 방식으로서 표현된다. 그의 시에서의 모성은 여성적 체험을 바탕으로 체제에 기여하려는 책임의식, 돌봄,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는 접촉의 시어로 형상화된다.

리연희의 시에서는 혁명적 낭만이 열정과 환상으로 표출된다. 선군시대 북한 문학은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길에 들어서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혁명적 낭만성을 구현할 것이 요구되는데 리연희의 사회주의 현실주체 작품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여성 특유의 감성인 안음과 안김의 시어로 표출된다.

리라순은 사회주의 현실주체 작품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최근의 작품에서는 최첨단 돌파를 위해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리라순의 소설에서는 정과 사랑의 의미를 모성에 비유하여 그 의미가 강인하고 뜨거운 믿음임을 강변하는데 이는 정의 서사를 이룬다. 이러한 선군시대 북한 여성 작가의 글쓰기 양상을 통해 북한 체제 하의 여성의 삶과 시대정신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핵심어 : 선군시대, 렬형미, 리연희, 리라순, 감성적 글쓰기, 모성, 혁명적 낭만, 정과 사랑

1. 들어가며

북한 여성 작가의 글쓰기는 일반적 의미의 여성적 글쓰기와는 다른 양상을 선보인다. 여성적 글쓰기가 기존의 글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격을 지니고 주류 권력이나 그들의 지배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하여 그 속에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의도들을 들추어내고 전복을 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¹⁾에 비해 북한의 여성 작가는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글쓰기 형태를 선보인다. 북한 작가들이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체제 붕괴의 위기와 ‘선군사상’으로 일컬어지는 체제 극복 정책노선을 예술 창작의 미학으로 전환시킨 문예정책²⁾이 정립된 2000년대 전후 ‘선군혁명문학’ 기치 아래 이념적이고 강박적인 글쓰기를 선보일 때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선군혁명문학이 학술적 용어 개념의 단선화, 토론과 논쟁의 부재, 도식주의의 만연³⁾으로 리얼리즘의 본령에서 벗어날 때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도식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대화적이고 유희적인 글쓰기, 소수자를 위한 글쓰기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여성의 글쓰기 양상을 통해 이념적이고 집단적인 형태가 아닌 소통적, 정서적 형태의 글쓰기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작가의 글에는 감성적 글쓰기의 특징이 나타난다. 1990년대 수령의 사망과 ‘유훈 통치기’를 거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2000년대 선군시대를 맞이하면서 연이은 재난과 위기의식이 문학적으로 표출될 때 일련의 북한 여성 작가의 글 속에서는 여성 특유의 감수성이 드러난다. 감수성을 하나의 세대나 시대에 있어서 부상하는 경험, 특히 이미 형성된 스타일이나 규범이 아니라 일종의 출현하는 정서로 본다면, 감수성

1) 안미현,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과 가능성』, 『사고와표현』 2(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 61~81쪽.
 2) 김성수, 『선군과 문학-『조선문학』(1998~2007) 10년의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문학의 지형도』2, 청동거울, 2009.
 3) 김성수, 위의 책, 8쪽.

은 사적인 것이 아닌 시대와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무의식이 드러나는 장이며, 때에 따라서는 담론적 인정투쟁의 장이기도 한다는⁴⁾ 의견에 따르면 선군시대 북한 여성 작가의 감성적 글쓰기는 북한의 시대정신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의 위기 속에서 주체시대에서 선군시대로 변모하였으며 문학에서는 전체가 규율하는 주도적 감성 이면에 사적인 감수성이 포착된다.⁵⁾ 특히 여성적 글쓰기 양상에서는 가부장적 북한 체제에서 겪는 여성으로서의 삶과 감성이 문학적으로 표출되어 고난의 시대를 감내하고 이겨나가는 극복의 양상이 전개된다.

북한 여성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 체제에서의 여성이 처한 현실과 삶에 대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선군시대를 맞이하여 남성은 체제를 지키는 군대와 군수산업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북한 여성은 국가권력에 의해 이악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북한 여성들은 생존과정에서 스스로 이악함을 내면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연구가 있다.⁶⁾ 이 연구에 따르면 선군시대 북한은 “공급과 자원부족 상황에서 일차적 자원분배를 군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선군시대에 국가의 국민부양 의무를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북한여성들은 ‘돌봄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장시킬 것’을 요구받았으며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권력이 여성에게 요구한 성적 정체성은 ‘보은과 섬김, 헌신, 근면, 알뜰’이라는 여성 도덕물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수령제와 세습체제가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가부장성은 권력의 위계성을 극도로 강화했으며 양성 간의 성별 위계를 더욱 구조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군시대 남성상은 “불변성, 무조건적 충성심, 동지애, 인내심, 용맹함, 비타

4) 김은하, 『여성의 교양화 과정과 젠더화된 글쓰기의 이중 전략』, 『인문과학연구』제 31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69쪽.

5) 임옥규, 『2000년대 북한 문학 감성과 새 세대의 감수성』, 『현대북한연구』17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4, 165쪽

6) 박영자, 『선군시대 북한 여성의 색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15권 2호, 통일연구원, 2006.

협성, 단호함, 무자비함, 적에 대한 중요” 등 군인정신을 정교화한 ‘총대 정신’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식량난이라는 극심한 위기 하에서 여성들의 변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그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다.⁷⁾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삶의 변화가 가부장적 사회로 평가되는 사회를 변화시켰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여성의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성과 남성이 기존 사회질서에서의 위치와 국가와 맺는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⁸⁾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는 북한 여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하여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위기와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극복의 방식이 여성적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엄혹한 식량난 시기에 여성적 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창작에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가⁹⁾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평양시 문학창작실의 대표적 여성시인들은 식량난 시기의 문학을 각이한 방식으로 창작하였다.

북한 여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는¹⁰⁾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의 새로운 의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공식적인 것, 남성적인 것들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본격적인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등장하였음을 제기한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선군시대 북한 여성작가의 작품에

- 7)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통일연구원 총서), 통일연구원, 2004.
- 8) 조영주,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젠더 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3.
- 9) 최진이, 『북한 여성시인 령형미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6, V쪽.
- 10) 이상경, 『북한 여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투영된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규 작가양성 과정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창작과,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작가양성반(3년) 등이 있다. 비정규 작가양성과정으로는 6.4문학상, 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 등 전국 단위의 문학작품 경연대회나 작가동맹이 연 1회 도별로 실시하는 문학통신원 강습과정에 개인투고를 통해 추천되는 경우가 있다.¹¹⁾ 본고는 1982년에 북한에서 전국의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6.4문학상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적 지원 하에 성장한 세대¹²⁾ 중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선보인 북한 여성 작가를 선정하여 북한 체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서의 글쓰기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선군은 군대를 앞세운다는 의미로 여성적인 것보다 남성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용어이다. 본고는 선군시대라는 북한의 위기이자 전환의 시기에 여성 작가들이 표출한 감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작가들로 하여금 생활 속으로 들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군시대 여성 작가들 또한 다양한 체험을 글로 표현하면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생활의 발견과 시대의 감성을 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럽형미, 리연희, 리리순의 글에서는 정서적 교감을 통한 감성적 글쓰기의 형태가 돋보인다. 이들은 군중문학 작가 출신으로 생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선군시대의 이상과 감성을 분출하고 있다.

렵형미, 리연희, 리리순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선군시대, 최근 김정은 체제까지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전개해온 여성작가들이다. 이

11) 작가선발은 문예총 산하 조선작가동맹 간부과에서 관린학부 졸업생 또는 현상모집 입선자, 문학통신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발되던 조선작가동맹을 비롯하여 4.15 문학창작단, 외국문중합출판사 등에 배치된다. 작가동맹 산하 평양지부 창작실은 시문학, 소설, 아동문학, 희곡, 고전문학, 평론, 외국문학 분과 및 신인지도부 등의 분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활동 중인 작가는 대략 18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방의 각 도지부에는 대략 20여명 정도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직업세계』, 통일부, <http://unikorea.go.kr/content>.

12) 최진이, 앞의 책, 2006, 21~22쪽 참고.

들은 북한에서 여성작가들이 많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문학세대로 다른 작가들에 비해 많은 양의 작품을 창작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럽형미, 리연희는 60여 편 이상의 시를 주요 잡지와 신문에 게재하였고 리리순은 단편 소설과 중, 단편 소설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체제의 시기별 특성을 옹호하고 이를 형상화하면서도 감성적인 여성적 글쓰기를 선보인다. 이는 이념과 구호에 치중되어 있는 북한 문학의 보편적인 양상에 비해 새로움을 선사한다.

럼형미는 북한의 고난의 시기에 “녀성으로서 시인으로서 그 시련의 와중에 있었으며 그는 그속에서 력사에 류례 없는 시련을 맞받아 나아가는 이 나라 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며 또 무엇을 증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웃고 있는지 생활 속에 간직된 인간 내면세계의 심연을 헤아려”¹³⁾ 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리연희는 “녀인의 시점에서 선군시대 녀성들의 정신세계를 파고든”¹⁴⁾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 평가받으며 리리순은 2010년 전후 북한이 최첨단 돌파를 외치며 북한의 과학중시 사상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식경제 시대를 유도하는 최첨단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러한 최첨단이 무엇으로 돌파되는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본고는 이들의 글쓰기 양상을 통해 선군시대 북한 여성들의 삶과 문학적 구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럽형미, 접촉의 시어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선군시대에 접어들었다. 선군시대에 북한 작가에게 요구되는 문학적 과제는 시대의 사상 감정과 현실을 절실하고 의의 있게 반영하는 것이다.¹⁵⁾

13) 류만,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1)』, 『조선문학』, 2002.5, 65쪽.

14) 리동수, 『시는 시로 되어야 한다』, 『조선문학』, 2006, 10, 74쪽.

특히 시대와 생활을 체험적으로 형상화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림형미는 고난의 행군 시기,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당선작 『시련과 녀인』을 발표한 뒤, 줄곧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운명을 노래한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북한 문단에서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¹⁶⁾

림형미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21살에 강선제강연합기업소 생산 현장에 입직하였으며 80년대 말부터 시를 발표하였으며 6.4 문학상¹⁷⁾을 2차례나 수상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림형미는 1987년 1월에 『조선문학』에 시를 발표한 이후 1997년 시초 『엄마의 노래』로 전국 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에서 1등에 당선되었으며 1999년 전국 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에도 시초 『시련과 녀인』이 1등에 당선 되었다. 림형미는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선군시대 북한 여성의 삶을 형상화한다. 림형미는 현실 체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를 형상화한 시를 창작하였다.

몇 달전에 나는 문학수업에 뜻을 두고 로동계급 속에서 일하며 생활을 배우고싶어 철의 도시 강선으로 왔다.

얼마전에 나는 강철직장 배전공으로 견습을 받으며 느껴지는바가 있어 시 한편을 썼다. 내가 보건대 시의 상이며 정서 그리고 시대적 미감도 좋고 생각되는데 시어 하나가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아 몹시 안타까웠다.

(중략)

15) 리창유,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 『조선문학』 2008년 제3호, 22쪽.

16) 최진이, 앞의 책, 참고.

17) 6.4문학상은 북한 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전국의 문학후비군 속에 대중적 창작 열의를 한층 더 높일 의도로 작성한 제의서가 1982년 6월 4일 김정일에 의해 비준되어 제정된 상이다. 1982년 6월 평양에서 전국 문학통신원대회가 열린 가운데 ‘6.4문학상’ 당선작품 첫 시상식이 있었다. 작가동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된 전국 문학작품현상모작 천여 편 중 소설, 시, 희곡(혹은 아동문학) 부분의 최우수 작품에 이 상이 수여되었다. 문학통신원들은 2.16 전국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과 월간지인 『청년문학』을 통해 등단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최고의 상은 ‘6.4문학상’이다. (위의 책, 2쪽)

그래! 자기의 피를 바치고 자기의 땀과 살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희로애락을 바치고싶은 그런 생활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간의 심장을 지니게 되며 문학의 열쇠도 찾아주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략)

나는 이시각도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현실은 참말로 창작의 어머니라고!¹⁸⁾

럼형미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시에서 고난의 행군을 헤쳐 나가는 여성들의 삶의 자세를 의연하게 그려내고 있다. 시인은 시 속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 사회 참여에 나선 어머니들이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을 형상화하면서 쌀, 물, 불 조달을 위해 애쓰는 대범하고 역센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시에 나타나는 고난의 행군 시기 여성의 형상은 자애롭고 낙관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띤다. 이러한 형상화 이면에는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어 가족과 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미화된다.

땅이여/서른해나마 너를 꼭꼭 밟으며/한 사내애의엄마로 되기까지/나는 너를 너무도 몰랐구나//

(중략)

오, 시련의 오늘 /못난 췌기풀조차 덩석 밟을수 없노라/말없이 네품에 뿌리내린 그것들/나에겐/흰쌀마냥 귀중하거니//

쭙쭙한 향기 그 뽕음을/인생의 참맛으로 달게 먹으며/행복의 서른해에 몰랐던 것을/고난의 한 해에 다 알았노라//

-럼형미, 「땅이여!」(시조 「시련과 너인」), 『청년문학』, 1999.11)

아우성치는 거리의 눈보라속에/법석 떠드는 녀인들의 웃음소리/깡이 메

18) 럼형미, 「현실에 대한 생각」(단상, 천리마계강 연합기업소 현지특집), 『조선문학』, 1987.3. 35~36쪽.

고 삼날 번쩍이며/발전소건설장으로 뭉쳐가는 가두의 행렬//
 퐁퐁 동여맨 털수건속에서/불쑥 튀어나온 북변사투리/-에그, 신통히두
“리” 받침 달린것들만 여자들 속을 태우지 않습메?//
 와하 웃으며 받아치는 목소리들/쌀! 물! 불! …/허나 그게 무슨 큰 일인가
고/또다시 타래쳐오르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렘형미, 『겨울』(시초 『시련과 녀인』, 『청년문학』, 1999.11.)

 빈손으로 배급소문을 나서며/나약하던 그 걸음은 저멀리 사라졌노라/빨
라감 모아놓고 수독물 기다리던/친진스런 그 모습도 없어졌노라//
 이악하고 씩씩하고 두렵 모르는 내 마음/인민반 옷놀이에 남편까지 불러
오고/주먹밥 싸든 지우너부대의 한 대원으로/명승지건설장에 더운 땀 바치
노라//
 오, 뎡이날 휘두르면 감자밭 늘어나고/중소형발전소 수풀처럼 솟거니/조
선옷 차려입으면 춤판이 덩실덩실/총창을 틀어쥐면 육탄이 못되랴//
 -렘형미, 『시련과 녀인』(시초 『시련과 녀인』, 『청년문학』, 1999.11)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그토록 아름답고 강의하고/일손은 류달리 올
골찬것인지…(중략)
 대범스럽고 억세기도 한 이 녀인들에게/그렇게도 감미롭고 재간많은/보
배로운 손이 있다는 것은 참…//(중략)
 북쪽의 녀인들과 한번 인연을 맺으면/천점 바줄로 칭칭 동에 맨 듯/떨어
지기 정녕코 쉽기 않아라/참된 사나이는 더더욱 참되어 지고/그렇지 못한
사나이는 비로소 삶의 진미를 알게 되나니…//
 -렘형미,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 『조선문학』, 2001.2)

렘형미의 시초 『선군과 녀인』은 선군시대 여성들의 정신세계를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시초는 정치적이거나 선언적이지 않으며 직선적인 시어들로 추상화되지 않은 점이 높이 평가된다.

시초의 모든 시편들이 선군과 녀인과의 필연적인 인연속에 탐색되면서 시적계기와 정서적충격과 같은 형상요소들이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맞물려지고 있다. 시 《사랑의 담보》, 《별많은 밤에》, 《선군과 녀인》등이 다 그렇게 착상되고 탐구된 시들이다. 특히 마감시 《선군과 녀인》은 시초를 품위있게 결속지으면서 이 나라 녀인들의 성격과 생활을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 감성적이면서도 지성이 있게 폭을 넓혀나간 시적일반화의 솜씨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¹⁹⁾

렘형미가 『선군과 녀인』에서 국가와 체제를 위해 동원되는 모성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다른 작품에서는 결혼과 출산, 육아의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감각, 돌보는 모성 역할에 대해 노래한다. 렘형미 시에 나타나는 ‘모성’은 남성 중심적인 부정적 질서에 대한 전복이 아니라 여성이 겪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선군시대 북한이 겪는 문제들과 결부되어 이를 극복해내는 방식으로서 표현된다. 그의 시에서의 모성은 여성의 삶을 바탕으로 체제에 기여하려는 책임의식, 돌봄, 사랑으로 표현된다. 시초 『엄마의 노래』는 처녀 적에 아들을 낳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하여 선군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자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봄날의 종다리마냥/명랑하고/새벽의 들국화마냥 싱싱한/나의 처녀시절
//(중략)

기쁨만을 저으는 종다리 나래에/무거이 무거이 짐을 실을래/싱싱히만 웃는
들국화꽃잎에/송고한 이롭다움 더해놓을래//

조국의 래일을 두팔에 안아/사랑의 젖으로 키우는 엄마/가꾸는 행복으로
가슴풍만한/ 이 나라의 한 어머니 되고싶어//

-렘형미, 『고백』(시초 『엄마의 노래』, 『조선문학』, 1997.8)

19) 리동수, 『시는 시로 되어야 한다』, 『조선문학』, 2006, 10. 74~75쪽.

이 나라의 한 아버지 어머니되어/ 새로운 효성 더해갈 뉘뛰는 두 심장//
사회주의 조국의 한송이로 꽃핀 우리 사랑/ 이 행복 지켜갈 사내애를 낳
을 것입니다!!

-렘형미, 「사랑의 열매」(시초 「엄마의 노래」, 『조선문학』, 1997.8)

난알항기 땀항기에 흠뻑이 취해/붙어나는 젖가슴 느껴질 때면/ 그윽히
피어나는 행복의 미소/그러면 포전에는 유모차 들어서네/

로동의 보람 엄마의 긍지/한껏 부풀은 가슴 아기에게 맡기니/덩달아 흘
러하는 분조원들/비서어머닌 버릇처럼 또 그 이야기//(중략)

장군님과 애기어머니/언제나 이 별에 함께 계시네/오곡을 가꾸며 미래를
키우며/조국의 부강 사랑으로 마련하시네//

-렘형미, 「장군님과 애기어머니」(시초 「엄마의 노래」, 『조선문학』,
1997.8)

손에서 비누 거품 마를새없이/ 아기의 옷을 빨고/ 장난꾸러기 몸 깨끗이
씻어주며/엄마는 무얼 생각하나// (중략)

아, 엄마되어 나는 앞았네/우리 장군님 어머니 조국을/아기를 안은 엄마
결코 쓰러질수 없듯/사회주의 붉은 기치 곳곳이 전진함을//

자식을 낳아 사랑다해 키우며/그 땀짓는 행복속에/누구보다 장군님을 잘
아는 이 나라 어머니들/이제는 나도 그속의 평범한 녀인//

자식을 위해서라면/목숨도 아낌없을 나는 엄마/허나 나의 조국 김정일장
군님 위해서라면/아들과 함께 총폭탄이 되리라//

-렘형미, 「엄마의 노래」(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 1등 당선작품, 시초 「
엄마의 노래」, 『조선문학』, 1997.8)

렘형미의 시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선군시대에 접어들면서 모성 경험을
을 체제의 변화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그의 시에서는 추상적이거나 도식
적이지 않은 감성적 글쓰기가 돋보인다. 그의 시는 ‘너를 꼭꼭 뺏으며’,

‘네 품에 뿌리내린 그것들’, ‘두 팔에 안아 사랑의 젖으로 키우는’, ‘한껏 부풀은 가슴 아이에게 맡기니’, ‘장난꾸러기 몸 깨끗이 씻어주며’, ‘고운 입술 비비는’, ‘한 가슴에 비벼 안고 뜨거운 눈물에 얼룩지고 싶은’ 등의 접촉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생동감 있으면서도 따스한 마음의 움직임을 전달한다. 아래의 시에서는 체제의 속박과 시대의 어려움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유하는 시적 화자의 모성이 돋보인다.

푸르른 이 땅 아름다운 모든 것을/백지같이 깨끗한 네 마음속에/또렷이
소중히 새겨 넣어라/이 엄마 너의 심장은 낳아 주었지만/그 속에서 한생 뜨
거이 뛰어야 할 피는/다름 아닌 너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다 //

네가 바라보는 하늘/네가 마음껏 덩구는 땅이/네가 한생토록 안고 살 사
랑이기에/아들아, 엄마는 그 어떤 재간보다도/사랑하는 법부터 너에게 배워
주련다/그런 심장이 가진 재능은/지구 우에 조국을 들어 올리기에..... //

-『아이를 키우며』(렘형미, 『조선문학』, 2002.11. 75쪽.)

위의 시는 『엄마의 노래』에서 김정일을 위해 아들과 함께 총 폭탄이 되리라고 다짐했던 어조와는 사뭇 다른 모성적 사유를 표현하고 있다. 모성적 사유는²⁰⁾ 러딕(S.Ruddick)이 제시한 개념으로 어머니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유를 기술하는 것이다. 모성적 사유에서 핵심어는 ‘공감, 배려, 관계 중심’이다. 여기에서 배려 모델의 특징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성의 방식을 통해 체현된다. 모성적 사유는 리얼리즘과 공감, 생명의 성장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한다.²¹⁾ 위의 시를 통해 렘형미가 북한 체제에서 비롯된 이념적 경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유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여와 돌봄의 모성적 글쓰기를 활용하

20) 이미식, 『모성적 글쓰기를 활용한 도덕과 수업지도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43권, 2013, 295~299쪽 참고.; Ruddick, S.,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1995.

21) 위의 글, 296쪽.

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럽형미는 서정을 통해 조화와 통일적 세계를 지향한다. 『녀인의 노래』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소통을 중시하며 부강한 조국에 일조하는 모성의 힘으로써 의연히 일어서는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아름다운 행복의 옷은 녀인이 뜬다네/기쁨과 때로 아픔이 영킨 생활의
실토리/녀인이 작은 두손에 풀려 나가네/인생은 다시 뜰수 없는 뜨개질과
같이/만약 한코를 놓친다면/불행의 흠집은 날로 커지리//

아, 녀인이여 불 같은 사랑으로/마지막 한코까지 뜨고 또 뜨라/정다운 이
들에게 입혀 줄/아름다운 행복의 옷은/성실한 녀인만이 지을수 있다네//

아기를 업은 엄마 넘어 질수 없듯이/사회주의 어머니는 곳곳이 걸어 가
리/애끓는 눈빛으로 요람을 다독이고/창조의 두손으로 생활의 뿌리 가꾸는/
강직한 이 나라 녀인들 있어/부강의 조국은 일떠서리라//

아, 녀인이여 사랑의 시작도/사랑의 마무리도 그대가 맺는 법/정다운 이
들에게 입혀 줄/아름다운 행복의 옷은/굳세인 녀인만이 지을수 있다네//

-『녀인의 노래』(럼형미, 『조선문학』, 2002.3. 30쪽)

럼형미는 1990년대 전후에 시단에 등장하여 여성들이 겪은 시대적 시련과 난관에 대해 접촉의 시어를 활용한 모성적 글쓰기를 통해 감성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부록 <표1>은 럽형미의 작품을 망라한 것으로 북한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여성작가 특유의 시선과 감성을 유지하는 시인의 글쓰기 양상을 시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3. 리연희, 안음과 안김의 시어

선군시대 북한 문학은 대중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종속시키기 위해 감성의 분출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선군시대의 주된 정

서는 낭만적인 서정으로 정의된다.

오늘의 서정미는 거기에 시대생활의 기본지향과 시대미감이 선명하게 조명될 때라야 가치를 가진다. 격조높이 솟구치는 아름답고 숭엄하고 장엄한 서정, 시련을 맞받아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줄달음치는 격렬하고 낭만적인 서정, 이것이 오늘 우리 선군시대의 주되는 서정이며 기상이다.²²⁾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는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길에 들어서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혁명적 낭만성을 구현할 것이 요구되는데 리연희의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시인의 독특한 글쓰기 양상이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연희 시에서의 혁명적 낭만은 열정과 환상으로 표출되며 여성 특유의 감성인 안음과 안김의 시어로 표출된다.

리연희는 1990년에 『힘들지 않습니다』라는 시로 등장하였으며 2001년에 ‘조선로동당 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에 서정시 『해빛』, 『끝나지 않은 노래』로 입선하였다. 시인인 리건구를 아버지로 두고 화가인 류덕순을 어머니로 둔²³⁾ 덕분인지 감각적이고 회화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시 『밤하늘의 처녀들』은 시적 화자가 석탄산에서 일하는 처녀들의 현장을 체험하러 갔다가 잠든 처녀들과 별을 안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석탄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전차마다 가득히 석탄을 싣고/머리우에 불꽃을 날려가는 처녀들.../이 밤엔 별들도 많네/탄전의 밤하늘엔 별들도 많네//

반짝이는 별들과 꼬리잡이하는가/이득히이득히 오르는 불꽃/좌르르 검은 금 저 하늘에 쏟고서/류성처럼 즐겁게 땅속으로 흘러드네//

기특한 처녀들/눈동자 별빛같은 그 얼굴들/내 보고싶어 만나고싶어/로적

22) 리동수, 『시는 시로 되어야 한다』, 『조선문학』, 2006.10, 72쪽.

23) 최진이, 앞의 책, 63쪽 참고

봉을 올랄 청년갱으로/석탄산으로 올라서니//

어느새 잠들었는가/밤새동무하여 빛나던 별들/처녀들도 수집은 듯 땅속
깊이 사라지고/멀리 가까이 비껴오는 노을/아 눈부신 새벽 번쩍이는 석탄
산//

처녀를 안아올렸네/땅속의 검은금/ 이 하늘 아래 이 땅우에/모두 안아내
렸네/저 하늘의 별들도...별들도...

-『밤하늘의 처녀들』(리연희, 『조선문학』, 2000, 5, 49쪽)

시 『행복한 사람』은 일생 동안 숲에 살면서 그 숲을 가꾸는 것에 사랑
과 땀을 바쳐온 산림감독원에 대한 노래로 이 시의 화자는 산림 감독원
이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키워나가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산림감독원
을 “온 산을 떠메어올린 사람”, “돌박산우에 숲을 안아올린 사람”으로 표
현하고 차판마다 나무들을 떠나보내는 심정을 “시집, 장가가를 보내는 자
식마냥”으로 형상화한다. 이 시는 시대에 대한 열정과 낭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삽한삽 바위마다 흙을 엮으며/한배낭 또 한배낭 나무마다 거름을 주며
/땀젖은 저 등어리로/온산을 떠메어올린 사람/돌박산우에 숲을 안아올린 사
람//(중략)

산기슭에 처마를 잇댄 그의 집/밤이면 그와 함께 산도 누운 듯/어린잎 살
랑대는 서재골/아름드리 듬직한 령대골의 설레임소리/자식들 숨결처럼 다
가려들으며 잠드는/그것이 산림감독원 그의 더없는 락이었어라//

이 아침에도/이슬젖은 밀림속에 나무들 자라는 소리/봄비속에 산이 크는
소리/온몸으로 들으며/산짐승들 울음소리 맹수들의 발자취에도/숲의 늘어
가는 식물들을 자랑하는 사람//(중략)

오늘은 산이 그를 받들었네/그 그루마다 또다시/뿌리를 내려 솟구쳐오를
그의 삶/영원히 푸르러 늙지 않을 애국을 떠받들었네//

-『행복한 사람』(리연희, 『조선문학』, 2007, 10)

이에 대해서는 시대에 대한 열정이 낡은 시적 환상과 낭만이 서정적 주인공이 평생 동안 숲을 가꾸는 애국의 형태로 잘 형상화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시 《행복한 사람》(리연희 작, 10호)은 한생 숲에 살면서 그 숲을 살지 우며 사랑과 땀을 바쳐온 산림감독원을 노래하고 있다. 시는 귀중한 재부를 가꾸어 어머니조국에 심장의 선물을 올리는 순간을 시적계기로 하여 한생을 기꺼이 푸른 숲과 바꾼 서정적주인공의 숭고한 인생관을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정서에 담어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시는 시대에 대한 열정이 낡은 시적환상과 낭만의 세계속에서 숲과 애국과 인생에 대한 삶의 철학을 얼마나 진지하게, 무게있게 발견하고있는것인가. 시에는 선군시대 영웅을 찬양하고 자랑하고싶어하는 시인의 열정과 함께 그에 대한 시대의 찬가, 시대의 축복이 비껴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이 선군시대 인간이라는것을 정서적으로 감수할수 있도록 서정을 펼쳤더라면 새맛도 나고 시적감흥도 컸을 것이다.²⁴⁾

시 『산-녀인』은 선군시대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혁명적 낭만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거창한 산악을 안고 산과 함께 살며 한 생을 바쳐가는 여인의 모습이 안음과 안김의 관계를 통해 내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 낙관을 안겨주는 환상적인 모습으로 선보인다. 산과 몰아일체가 된 여인의 모습에서 산에 안겨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산을 품에 안고 있는 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시는 시인의 서정이 열정과 환상으로 표현된다.

산이 무섭지 않던가고/그 말에도 빙그레 웃기만 할뿐/힘들지 않던가고/
고생스럽지 않던가고/그 말엔 더더욱 말없이/나를 바라보며 웃기만 하던 너

24) 김해월, 『선군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서정세계』, 『조선문학』, 2008, 4호, 64~65쪽.

인//(중략)

왜 무섭지 않았겠나요/개간의 첫 발과를 울려/천년 잠자던 산을 흔드니/
쌍바위 절벽은 하늘을 가리며 막아섰어요/걸을걸음 바위돌을 들어내며/억
척같은 뿌리들과 싸워야 했어요/한자옥도 그냥은 열어주지 않는 산이었어
요//(중략)

연두봉 구름봉.../녀인과 함께 올라선 굽이굽이/내 벽찬 숨을 튕으며 돌
아보니/칩칩 산마다 휘여감은 저 길들은/그날에 풀새없던 녀인의 허리띠가
아닙니까//(중략)

녀인이 산을 안습니까/산이 녀인을 안습니까/나에겐 보여옵니다/굽이굽
이 산허리를 휘여감은 길들은/그대로 녀인의 손길처럼/주름주름 푸르러 흘
러내린 산자락은/이슬에도 땀에도 눈비에도 함께 젖던/녀인의 그 치맛자락
처럼//(중략)

아 녀인의 품에 안기여/태연히 웃고있는 산/나는 산의 표정을 그리고 싶
습니다

-「산-녀인」(리연희, 『조선문학』, 2007, 3호, 위대한 수령님 탄생 95돐 전
국문학축전 작품)

이 시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희생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시적 감동과 미래
에 대한 신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시 《산-녀인》은 한생을 산과 함께 살며 그 산을 가꾸어온 너무나도 평
범하고 순박한 녀성관리위원장을 노래하고 있다. 깊은 미학정서적미를 안
겨주는 이 체험세계의 분출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행군》의 준엄한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개간자의 참모습, 자식을 소중
히 안듯이 산을 품에 안은 녀인의 헌신적인 모습을 생동하게 표상하게 한
다. 시는 고생을 고생인줄 모르고, 기울인 정보다 바쳐야할 그 정이 얼마나
지 따로 헤아릴줄 모르는 녀인의 사랑의 노래, 모성애의 노래이다. 참으로

시에서는 평범한것 같으면서도 평범치 않은 거인의 모습, 사심없는 자각과 책임감,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산과 같은 거인적인간의 형상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다.

-김해월, 『우리의 선군시대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사색-올해 상반기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시들을 중심으로』, 『조선문학』, 2007, 10호, 71~72쪽)

북한에서는 현실에 환상을 부여하는 낭만적 수법을 부르주아적 환상과 구별해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신심이 깊고 열정이 강렬해서 현실의 한계를 떨치고 미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을 일컫는다.²⁵⁾ 북한 문학예술은 작가들이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 체득한 현실의 생생한 묘사와 비루한 현실을 열정과 믿음으로 극복해 미래를 선취하려는 낭만적 의지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²⁶⁾ 리연희는 생생한 현실을 묘사하면서 안음과 안김의 시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신심을 열정과 환상으로 표현한다. 이는 리연희의 시가 선군시대 주요하게 요구되는 혁명적 낭만주의 경향을 대표하면서도 시인만의 독특한 열정과 환상적 낭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록 <표2>에서처럼 리연희는 체제에 이바지하는 시를 많이 창작하였지만 사회주의 현실주제 시에서는 시인의 현실 체험이 낭만성과 결합하여 미래에 대한 신심을 환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4. 리라순, 정과 사랑의 서사

리라순은 강원도 벽촌 출생으로 1998년 ‘전국군중문학현상’에 『따뜻한 눈』이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북한에서 비정규 작가가 정규

25) 신형기, 『혁명적 낭만주의 시대를 넘어』, 『문예중앙』, 2000년 가을호, 129쪽.

26) 이명자,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영화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관계』,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14쪽.

작가로 되는 길은 무척 어려운데 리라순은 전국 군중문학 현상에 당선된 후 추천을 받아 김형직 사범대학 작가양성반에²⁷⁾ 편입할 수 있었다. 이후 2006년에 ‘조선로동당 창건 60돐 기념’ 전국문학축전 현상모집에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의 신분으로 당선되었다.

리라순은 김정일의 업적을 형상한 『문수봉 기슭에서』 등의 작품을 창작하였으나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리라순의 소설에는 공통적으로 여성과 과학, 청년 과학자들의 좌절과 극복이 나타난다. 최근의 작품에서는 최첨단 돌파를 위해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여성 주체를 형상화하고 있다.

단편소설 『행복의 무게』(『조선문학』, 2001, 3호)에는 연구사였지만 연구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유경’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소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과학연구 사업이 고달프다고 하여 쉽게 살아가려고 가정에 붙박혀 있거나 린접부문에서 적당히 일하려는 적지 않는 녀성들에게 교양적가치가 큰 절박한 사회적문제”²⁸⁾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를 받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사회적 명분과 개인적인 행복 사이에서 갈등한다. 결국 ‘유경’이 “인생의 극한점에서 끝내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의 참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²⁹⁾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그 과정 속에는 개인적 행복과 공적 사명 속에서 고민하는 여성의 모습이 형상화된다. 이 소설은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에 참여하는 청년과학자들의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27) 북한의 정규 작가양성 과정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창작과,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작가양성반(3년) 등이 있다. 특히 김형직사범대학은 북한의 인문학 분야에서는 인정받는 대학으로서 작가지망생들에게는 ‘희망의 등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전영선, 『북한의 예술교육체계와 예술교육 기관』,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선전과 교양』, 경진, 2013, 37~49쪽 참고.

28) 리창유, 『탐구와 사색의 뚜렷한 자취』, 『조선문학』, 2001. 9. 30쪽.

29) 리라순, 『행복의 무게』, 『조선문학』, 2001.3, 35쪽.

『행복의 무게』(리라순, 3호)는 청년과학자들의 형상을 비교적 특색있게 형상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특성은 정보산업의 시대인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하여 애쓰는 청년과학자들의 형상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절절하게 그린 것이다.(리창유, 『탐구와 사색의 뚜렷한 자취』, 『조선문학』, 2001. 9. 29쪽)

단편소설 『내 사랑 내 하늘』(『조선문학』, 2007, 4호)은 환경공학부에서 일하는 ‘경주’라는 여성이 고무공장에서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진장치를 연구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경주는 사투를 벌이면서까지 ‘우리 식의 중화제’를 찾아내고 보일러 폐수로 폐먼지를 중화할 수 있는 습식제진장치를 개발하여 후에 첫 여성환경 공학박사가 된다. 이 여성과학자는 진정한 사랑도 성취하여 가정을 이룬다. 이 소설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상대로 관료주의나 보신주의자가 아닌 열정적이고 성실한 남성상을 제시한다. 이 소설은 북한에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여성 연구자의 모습을 통해 제기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수도의 거리를 알뜰히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제기한 사회적 문제성은 현실적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다. (리창유, 『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형상세계』, 『조선문학』, 2007.8. 40쪽.)

리라순의 첫 장편소설 『사랑하시라』(문학예술출판사, 2009)는 평양산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본 줄거리로 하여 정과 사랑의 문제를 다룬다. 이 소설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끊임없이 정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묻고 독자들에게 “사랑하시라”고 요청한다. 소설 속 주요배경인 평양산원은 북한이 자랑하는 의료기관으로 산부인과 분야의 치료 및 예방, 기술 개발, 치료 장비 및 약품을 자체 생산하며 과학연구와 임상실험

을 병행하는 곳이다. 이 소설은 평양산원의 의미를 여성들의 친정집이자 큰집으로 부각시킨다. 이 소설은 기술부원장 권일학이 평양산원으로 부임하면서 하경옥 여의사, 강학선 과장, 서범천 의사 등과 겪는 갈등과 사랑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주요 사건은 복강경수술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권일학과 전통 개복수술을 지지하는 강학선의 갈등이다. 또한 권일학의 원칙주의적 입장에 상처 받지만 그를 사랑하는 하경옥의 이야기도 전개된다. 권일학이 남성이지만 산과의사를 택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산과의사의 중요성을 되짚는다.

권일학이 계속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두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산과야말로 종합적이며 녀성다운 부드러움과 정다움만이 아닌 용기와 결단, 힘과 무자비성이 필요한 그러한 과들중의 하나라는 것을 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애기들과 우리 녀성들을 위한 산과의사의 고결함과 긍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전 그것을 군사복무기간 어느 한 섬초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38)면 꼭 산과의사가 되리라가고 결심했던 겁니다.》(38쪽)

녀성 전문병원인 산원에는 서범천이나 강학선처럼 중요한 모퉁이를 맡고 있는 남성의사들도 많다. 단번에 두 생명을 책임져야 할 산과의사들에게 남성적인 힘과 용기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44~45쪽)

이 소설은 정과 사랑의 의미를 모성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이 소설에서 정과 사랑의 의미는 강인하고 뜨거운 믿음이다.

여자란 곧 어머니일세, 어머니처럼 강하고 뜨겁구 한없이 자애롭고 정찬 품이 또 어디 있겠나. ... 그러구 산과에 있는 하경이는 또 얼마나 이악하고 성실한지 몰라(46쪽)

왜 어머니가 자기자식을 매질하는가?

그것은 사랑하기때문이다! 자식이 귀하기 때문이다. (103쪽)

피와 생명, 수술칼과 인정... 진정 사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참다운 사랑인가?(143쪽)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인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의 가슴속에선 고동치는 뜨거운 사랑... 이런 사랑이 있는 한 절대로 생은 꺼지지 않는다. 뜨거운 정과 사랑이 있는 한 인간에 대한 믿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376쪽)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열린다! (중략) 얼마나 뜻이 깊은 말인가. 마음의 문은 강요한다고 하여, 사정한다고 하여 열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참되고 진실한, 가장 뜨거운 정과 사랑만이 심장의 문을 여는 법이다. (378쪽)

그가 모르는 것이 또 있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8시간, 대로는 12시간도 계속되는 피나는 수술로 바쳐지는 의사들의 진정한 사랑이나 서로의 우정과 의리를 지키는 동지적 사랑, 청춘남녀의 살뜰한 편정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크고 뜨거운 사랑의 밑바탕에는 모성의 진통처럼 사랑을 낳아 키우는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것이였다. (406~407쪽)

무엇인 사랑인인가고? 그건 무엇보다도 아낌없이 바치는 뜨거운 심장이라고

사랑은 위대한 힘이라 한다.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 헌신이라고 한다. 사랑은 곧 열이며 빛이라고도 한다. 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더 첨부하고싶은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의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그것은 아픔이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겪는 모성의 진통... 그 신성한 아픔 속에서

태어난 억세고 진실한 사랑마이 헌신이라는 아름답리줄기로 자라나 사랑이 태어나고 자라는 이 땅을 위해 모든 것을 깡그리 태우고 바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424)

사랑은 바치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것이고 길이 빛내갈 우리의 조국이며 미래입니다....

사랑하시라! 우리 녀성들과 태어나는 미래를 그리고 더 아름다워질 우리의 조국을...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하여 우리 조국이 강성부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가장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안고 미래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시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미래와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시라!...(425)

리라순의 최근 장편소설인 『은하수 흐른다』(문학예술출판사, 2012)는 ‘최첨단 돌파’를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 소설은 김정은 시대에 창작된 소설로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공장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주요하게 전개한다. 이 소설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옛 생산 공정을 확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김정은 시대에 중시하는 경공업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립성하 기사장을 비롯하여 여러 기사들의 노력으로 옛 가락 절단기 등의 기계설비들을 설계 제작하여 생산율을 높이는 과정이 소설 속에서 전개된다. 소설 결말 부분은 공장 사람들이 생산 공정을 컴퓨터로 조종하는 CNC기계들을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국방위원장을 기다리다가 그가 급서했다는 소식에 슬퍼하지만 다시 일어선다는 내용이 전개되며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곡산공장의 준공식이 새롭게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마감한다. 이 소설의 제목인 ‘은하수 흐른다’에서 은하수는 북한의 생필품 상표 이름이다. 이는 이 소설이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인민향상의 일환인 식생활 향상에 관한 소설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리라순은 부록 <표 3>에서처럼 여성 주제에서부터 수령형상, 김정은

시대 최첨단 돌과 주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설을 창작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과 사랑을 기본 서사로 하는 감성적 글쓰기가 자리 잡고 있다. 정은 감정이나 정서, 정감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은 서로를 결속해주는 감정³⁰⁾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것이다. 리라순의 소설에서 정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르익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으로 발전된다. 리라순 소설 속에서 사랑은 정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형상화된다.정이 배려와 관심의 측면에서 형상화된다면 사랑은 정을 통해 생겨나지만 매섭게 상대를 강하게 일으켜주는 그 무엇에 해당된다. 리라순의 소설은 모성의 구현 등을 통해 정과 사랑을 표출하고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을 형상화한다. 리라순은 소설 속에서의 여성, 과학, 과학자 간의 연관 고리를 통해 국책 사업 혹은 체제에 부응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정과 사랑이 중심이 되는 서사를 선보이는 감성적 글쓰기로 표출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첨단이 무엇으로 돌파되는가 하는 의문을 리라순의 감성적 글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라순의 작품 속에서는 공장 현대화와 기술 혁신을 위해 헌신하는 주인공들의 자질의 바탕을 정과 사랑에 두고 있으며 이는 최첨단 돌파의 원동력으로 표현된다.

5. 나오며

본고는 2000년대 전후 선군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북한의 체제 하에서의 북한 여성 작가의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1990년대 수령의 사망과 ‘유훈 통치기’를 거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2000년대 선군시대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연이은 재난과 위기의식이 문학적으로 표출될 때 일련의 북한 여성 작가의 글 속에서는 여성 특유의 감수성이

30) 강영안, 『정(情)의 현상학』, 『서강인문논총』 제13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36쪽.

드러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는 북한 여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하여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본고는 1980년대에 비롯된 국가적 지원 하에 성장한 문학세대 중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선보인 북한 여성 작가들을 선정하여 선군시대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서의 글쓰기 양상을 고찰하였다.

선군시대 여성 작가들은 다양한 체험을 글로 표현하면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생활의 발견과 시대의 감성을 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림형미, 리연희, 리라순의 글에서는 정서적 교감을 통한 감성적 글쓰기의 형태가 돋보인다. 이들은 군중문학 출신으로 생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선군시대의 이상과 감성을 분출하고 있다.

림형미의 시는 결혼과 출산, 육아의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감각, 돌보는 모성 역할에 대해 노래한다. 림형미 시에 나타나는 ‘모성’은 남성 중심적인 부정적 질서에 대한 전복이 아니라 여성이 겪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선군시대 북한이 겪는 문제들과 결부되어 이를 극복해내는 방식으로서 표현된다. 그의 시에서의 모성은 여성적 체험을 바탕으로 체제에 기여하려는 책임의식, 돌봄,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는 접촉의 시어로 형상화된다.

리연희 시에서의 혁명적 낭만은 열정과 환상으로 표출된다. 선군시대 북한 문학은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길에 들어서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혁명적 낭만성을 구현할 것이 요구되는데 리연희의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여성 특유의 감성인 안음과 안김의 시어로 표출된다.

리라순은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작품에서는 최첨단 돌파를 위해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여성주체를 형상화하고 있다. 리라순의 소설에서는 정과 사랑의 의미를 모성에 비유하여 그 의미가 강인하고 뜨거운 믿음임을 강변하는데 이는 정과 사랑의 서사를 이룬다.

본고는 선군시대 대표적인 여성 시인과 소설가의 작품 속에서 감성적인 시어와 서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 체제 하에서의 여성의 삶과 시대정신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87.1~2001.7.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문학』, 문학예술출판사, 2001.8~2013.12.
리라순, 『사랑하시라』, 문학예술출판사, 2009
리라순, 『은하수 흐른다』, 문학예술출판사, 2012.

2. 단행본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문학의 지형도 2: 선군 시대의 문학』, 청동거울, 2009. 22~45쪽.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통일연구원 총서), 통일연구원, 2004. 1~108쪽.
최진이, 『북한 여성시인 렬형미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6. 1~149쪽.

3. 논문

- 강영안, 「정(情)의 현상학」, 『서강인문논총』제13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12, 31~50쪽.
김은하, 「여성의 교양화 과정과 젠더화된 글쓰기의 이중 전략」, 『인문과학연구』제31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65~95쪽.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선전과 교양』, 경진, 2013, 37~49쪽.
박영자, 「선군시대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

- (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15권 2호, 통일연구원, 2006. 129~161쪽.
- 신형기, 「혁명적 낭만주의 시대를 넘어」, 『문예중앙』, 2000년 가을호, 116~136쪽.
- 안미현,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과 가능성」, 『사고와표현』 2(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 61~81쪽.
- 이명자,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영화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관계」, 『정신문화연구』제3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13~238쪽.
- 이미식, 「모성적 글쓰기를 활용한 도덕과 수업지도 방안」, 『초등도덕교육』 43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3, 285~306쪽.
- 이상경, 「북한 여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349~385쪽.
- 임옥규, 「2000년대 북한 문학 감성과 새 세대의 감수성」, 『현대북한연구』 17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4, 163~199쪽.
- 조영주,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젠더 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29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3. 111~142쪽.

부록

〈표 1〉 련형미 작품 목록

1987.1	시	조선문학	청춘이여!
1987.3.	단상	조선문학	현실에 대한 생각
1987.10	시	청년문학	강철과 녀인
1992.3.	시	청년문학	개울가에서
1992.6.	시	조선문학	숲 속의 아침, 처녀의 바구니
1993.6.	시	청년문학	흔적
1997.8.	시초	조선문학	엄마의 노래 -고백 -사랑의 열매 -행복동 - 충성동 -꽃과 영생 -장군님과 애기어머니 -엄마의 노래
1999.11	시초	청년문학	시련과 녀인 -땅이여! -새로운 인사말 -떨리는 손 -겨울 -나는 왜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시련과 녀인
2000.11		조선문학	나는 철의 도시 행복한 녀인이예요
2001.29.	시	문학신문	몰랐어요
2001.34.	시	문학신문	어이 모를까
2001.12.	시	조선문학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
2002.1.26.	시	문학신문	불새처녀 그이 녀인의 노래 줄다리
2002.2.	시	조선문학	그이
2002.2.	산문시	조선문학	방목길 백오십리
2002.3.	시	조선문학	녀인의 노래
2002.11.	시	조선문학	아, 모교여
2002.11	시	조선문학	아이를 키우며 빨찌산의 진달래 통일과 녀인
2003.3.	장시	조선문학	통일과 녀인

2003.3.	시 가사	조선문학	아들아, 네 탄창속에 재워져 있다
2003.3.	시	조선문학	안해와 부엌
2003.5.		조선문학	5월이 부르는 노래
2005.3.	시	조선문학	3월 8일
2005.9.2.	시	로동신문	룡남산에서 부르는 9월의 노래(시 묶음) -나의 하늘
2005.11			청춘의 문-시의 문
2006.4.	시	조선문학	지하시장에 대한 이야기
2006.5.	시초	조선문학	선군과 녀인 -녀인의 말 -녀인의 손 -사랑의 담보 -별많은 밤에 -선군과 녀인
2006.10.	시	조선문학	소쩍새 소리
2007.6.19.	시	로동신문	6월의 해빛은 천만리에(시묶음) -아버지
2007.7.	시	조선문학	전쟁
2007.22.	시	문학신문	8.15 송가
2008.4.9.	시	로동신문	우리의 승리(시 묶음) -아버지와 딸
2008.2.	시	조선문학	아들과 딸
2008.12.	시	문학신문	4.25축시
2009.8.	장시	조선문학	선군시대 녀성의 노래
2009.9.	시	조선문학	어머님 추억
2009.9.21.	시	로동신문	회령의 불타는 아침(시초) -아, 그날의 눈송이
2011.9.	시초	조선문학	조국과 녀인 -그 부름 앞에 -어머니 모습 -제일 큰 대학 -믿음 -조국과 녀인
2013.6.	시초	조선문학	어머니는 당월이다 -생명 -나의 당세포 -붓의 노래 -어머니는 당월이다

〈표 2〉 리연희 작품 목록

1990.6.	시	조선문학	힘들지 않습니다
1997.3.	시	조선문학	오시는 모습
1997.5.	시	조선문학	5월은 탄다
1997.6.	시	조선문학	배는 달리고 섬은 멀어지고
1997.7.	시	천리마	충효의 화원에서
1998.1.	시	청년문학	조국땅 새별은 멀어도
1998.3.	시	청년문학	장군님을 따라 앞으로!
1998.11	시	조선문학	기다리는 만경대
1999.2	일화 련시	조선문학	기다림
2000.5	시	조선문학	깊이 더 깊이 밤하늘의 처녀들 너의 한줌 메이리
2000.6.	시	청년문학	그이께서 바라보신다
2000.6.	노래 가사	조선예술	대홍단은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2001.33.	시	문학신문	그 손과 손들이
2001.12.24.	시	로동신문	옥련산에 남기신 불멸의 자옥(시초) -돌밀집 앞에서 -너의 푸르름 -산나물 추억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2002	시	시집 『신념과 철쇄』	그 한생들에
2002.7	작가일화	조선문학	민족을 사랑하라
2002.7.	시	조선문학	수령님의 애국은
2002.26.	시	문학신문	원동의 둥근 달
2002.8.25.	시	로동신문	땅과 계절과 너인
2002.10.	시	청년문학	너 여기에 있었구나
2003	시	시집 『우리는 선군 시대에 산다』	국경을 넘으 시여 수천리
2003.4.13.	시	로동신문	4월의 만수대
2003.8.	시초	조선문학	선군시간이 흐른다
2003.12.	시	조선문학	오, 철령 철령의 버들

			평화
2003.12	시	청년문학	승리자들의 한해 2003년이여
2004.12.	시, 가사	조선문학	나의 총 번호
2004.6.	시	조선문학	물이 흘러 하늘이 흘러
2004.4.11.	시	로동신문	물이 흘러 하늘이 흘러
2004.14.	시	문학신문	락원행 봄렬차가 떠나간다(시초) -선군시간이 흐른다
2004.35.	시	문학신문	나는 걷고 싶다
2004.12.14.	시	평양신문	복받은 흥단아
2005. 4.18.	시	로동신문	4월의 서정시(시묵음) -아, 백두삼천리벌이여
2005.6.	시	조선문학	그도 몰랐네
2005.9.	시	조선문학	내 조국
2006	시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새 력사』	산촌의 저녁
2006.3.	시초	조선문학	철산봉 -숲의 음향 -광부와 시인 -아침 -산... 산... -철산봉
2006.6.	시	조선문학	백두의 길
2006.20	시	문학신문	나는 이 땅을 우러르노라
2006.12.20.	시	로동신문	그리움의 12월(시묵음) -고향집 터밭
2007.1.	시	문학신문	나는 시를 부치노라
2007.7.	시	조선문학	고지의 흙 한줌
2007.17.	시	문학신문	나는 6월을 안고 산다
2007.21.	시	문학신문	어머니!
2007.3.	시	조선문학	산-녀인
2007.7.	시	조선문학	고지의 흙 한줌
2007.10.	시	조선문학	행복한 사람
2007.10.8.	시	로동신문	당은 우리 운명 우리 미래(시 묵음) -생명
2007.27.	시	문학신문	9월의 진달래

2007.3.	시	청년문학	학당골 소나무여
2008.1.13.	시	로동신문	새해의 첫걸음
2008.4.	시	문학신문	정이월도 정녕 추운 그날에
2009.3.	시	조선문학	행복
2010.5.	시초	조선문학	백두산정
2011.10.	시	조선문학	조국은 아득히 멀어져도...
2013.7.	시	조선문학	어머님의 새날
2013.10.	시	조선문학	아기와 해님
2013.12.	시	조선문학	우리의 거리로 우리와 함께

〈표3〉 리라순 작품 목록

1998	소설	전국군중문학현상	따뜻한 눈
1998.6.	수필	조선문학	창조와 우리생활
2001.3.	소설	조선문학	행복의 무게
2002.1.	단편소설	청년문학	초점
2004.1.	소설	조선문학	쌈은 깊은 곳에서 솟는다
2003.8.	수필	조선문학	녀성과 군복
2003.12.	소설	조선문학	문수봉기슭에서
2005.5.	실화문학	조선문학	보급자리
2005.9.	수필	조선문학	물에 대한 생각
2007.4.	소설	조선문학	내 사랑 저 하늘
2008.19.	시	문학신문	푸른 들 못 떠나는 마음
2009	장편소설	문학예술출판사	사랑하시라
2011.4.	단편소설	조선문학	집
2012	장편소설	문학예술출판사	은하수 흐른다

Abstract

Aspects of sensitive Writing of Women writers in North Korean in the Military-oriented Age*

Lim, Ok-Kyu

In this paper, I studied the emotional aspects of the writing of women writers of the North's military-first era. Since the late 1990s, North Korea had undergone a change and crisis. Thi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women. During this period women writers were creating a fiction and poetry the way to overcome them. Before and after the 2000s, North Korea, many women writers have emerged. The emotional writing of three women artists stands out among them.

Ryom Hyeong-mi was expressing the emotional writing using the language of the novels of contact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 of motherhood. In Lee Yeon-hee's poetry, revolutionary romanticism, using the language of the bond was expressed with passion and fantasy. Lee Ra-sun expressed a narrative about the passions and love in the novel.

In this paper, I studied the lives of women and the spirit of the North's military-first era via the sentimental novels and poetry of three women writers.

Key words : Military-Oriented Age, Ryom Hyeong-mi, Lee Yeon-hee, Lee Ra-su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B8067326).

Sensitive writing, Motherhood, Revolutionary romanticism, Feeling and love

- 본 논문은 2015년 7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